

雲門

불기 2561년

겨울호

통권 제143호

雲門寺僧伽大學



겨울문을 펼쳐다

- ❖ 겨울은 겨울 같은 계절. 이 적막강산에서 오롯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위대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 대교과 해정
- ❖ 순간순간 재발심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여 부처님 법으로 이 세상을 장엄하기를 발원합니다. / 대교과 진과
- ❖ 추운 겨울도 여전한 기쁨입니다. 비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금당에서의 추억을 되짚어 봅니다. 비님 내리소서. / 사교과 윤덕
- ❖ 일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을 다가올 날들의 희망으로 채워봅니다. / 사교과 지우
- ❖ 추운 겨울 날씨에도 금당 아궁이처럼 信心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 사교과 덕원
- ❖ 추위가 찾아와야 따뜻함을 온전히 품을 수 있듯이 힘든 일이나 마음이 찾아와도 지혜를 키우는 겨울 되시길! / 사집과 향광
- ❖ 설레었던 봄, 활기 넘치던 여름, 화려했던 가을이 가고 텅 빈 겨울이지만, 때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그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사집과 해중
- ❖ 친절할 것. 또 친절할 것. 그래도 친절할 것! / 사미니과 승혜
- ❖ 시린 찬바람을 견뎌내는 은행나무처럼 아린 상처를 잘 견디어 새싹 틔울 수 있기를. / 사미니과 인우
- ❖ "수행이란 죽 떠먹은 자리와 같다."는 은사스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어제보다 나은 수행자입니다. / 사미니과 선덕

雲門

목차



- | | |
|-------------------|---|
|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죽림현 | 행복해지는 가르침 명성 |
| 06 삼장원 | 힘 있는 수행자, 힘이 되는 수행자 일진 |
| 08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치문縉門』, 출가수행의 시작 송운 |
| 10 교수논단 | 선시禪詩와 그 사적史的 개관概觀 ① 원범 |
| 14 학인논단 | 『대승기신론』의 훈습熏習에 대한 고찰 ① 혜선 |
| 18 선자식탐방 | 溫故知新의 시간
삼선포교원 원장 묘순妙洵 스님 탐방 범여 |
| 21 풍경소리 | 심심왕래 心心往來 |
| 22 운문, 운문인 | 법계의 대자유인 진광
명성 회주스님 “미수”를 축하드립니다 |
| 26 특별기고 | 2017, 운문사 목판 인출 동우 |
| 32 선방에서 온 편지 | 이것이 무엇인가 자광 |
| 37 想 | 信 민계, 서륜 |
| 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빛보다 빠른 妄想, 빛같이 일어나는 煩惱 서륜 |
| 40 수행의 두레박 둘 | 기도 성취,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그 모순에 대하여 석인 |
| 42 수행의 두레박 셋 | 가을철 원주를 살면서 태감 |
| 44 차례법문 | 회주스님 시자 이야기 해공
하심, 화광반조迴光返照의 시작 유심 |
| 48 자유기고 |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노스님께 자운 |
| 50 이 한권의 책 | 간송 전형필 현우 |
| 52 운문논평 | 내가 만드는 세상 편집부 |
| 54 운문소식 | |
| 55 등불 | 삼장단 편집부 |

행복해지는 가르침

명성 / 운문사 회주



새해 법문

한 해가 저물고 밝았습니다.

해 바뀔 때가 되면 왠지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그렇지만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거나 다른 새로움이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함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좋았던 한 해였노라고.

“고맙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옛날 중국에 吉藏이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길장은 스승의 덕담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하면서 이유도 모른 채 함박웃음으로 길을 거닐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한 노파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길장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면서 웃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그래서 길장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사실… 나도 몰라요~!”

이 대답을 듣고 노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파에게 질문을 받은 길장은 멀뚱히 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당신이 모르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정말 너무 몰라서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그 기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길장은, “사실 나도 정말 모르는데요. 부처님이 이것을 알고서 극락에 오라고 한 적이 없어서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고 죽어보면 되지. 이러셨거든요.”

천태지자의 『마하지관』이라는 저서에 “一色一香無非中道”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소한 존재라도 中道の 진리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에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래 원죄原罪가 있는 우리 존재는 생명 있음의 고마움, 그 자체가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지요. 불교의 교리와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은 一法界說이라는 만다라의 세계관으로 존재의 근원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학인스님 여러분 ~!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해지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천안통을 얻은 아나을 존자는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지혜의 눈이 열린 분입니다. 눈이 멀어 바늘귀를 못 꿰어서 힘들어할 때, 부처님께서 “나도 공덕을 쌓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하시면서 도와주는 에피소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로드맵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해지는 길을 배우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



힘 있는 수행자, 힘이 되는 수행자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장



겨울 햇살이 따사로운 날. 한문불전대학원 6회째, 숭가대학 54회 졸업생을 보내는 졸업식이라는 소박한 이 의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부처님의 전법선언이 떠올랐습니다.

잡아함경 중에,

“수행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며 끝도 유익하도록, 내용도 유익하고 형식도 유익한 논리를 갖추어 법을 설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돌이켜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청정한 삶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선언하신 부처님의 심호흡을 통하여 ‘급변하는 시대와 다양한 지금의 현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부촉하셨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부처님 10대 명호 중 “세간해世間解”는 세간의 무지를 해소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양한 기술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품성과 인성을 갖추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넓은 안목으로 글로벌하라. 즉 중도적인 삶, 자비의 삶,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출가수행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필요로 할까요? 수행자의 청정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청정한 삶이란 최소한의 소유로써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향하여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더 행복해지는 길임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동감할 수 있는 자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사대사 해결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한 끼 따뜻한 식사가 더 절실합니다. 억울하고 차별받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고 그 곳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스승님이신 회주 명성 스님의 간단명료한 가르침이신 즉사이진(卽事而眞). 이 한 말씀 안에 모든 청정한 삶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매사에 진실한 수행자가 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스승님, 은사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신도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 동안 시간의 무게를 잘 감내하며 빛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 우뚝 오늘의 주인공 졸업생으로 있는 스님들이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학인이 아니라 이 풍진 세상에 뜻을 함께한 든든한 후배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겨운 도반입니다.

이제 세상의 목탁으로 떠나십니다. 잠시 떠나지만 여기 천년을 흐르는 이목소와 운문도량을 품은 호거산이 여러분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자정회(離者定會)도 되겠습니다.

그 때는 더 멋있고 성숙한 수행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고 힘 있는 수행자일 것입니다. 엇그제 치른 졸업시험 중 진로에 대한 서술란에 “운문사에서 4년간 생활을 늘 마음에 보듬어 안고 꼭 필요할 때 꺼내 쓸 것”이라고 답한 학인스님이 있습니다. “습의, 율력, 소입, 후원 살림, 아랫반 후배들과의 관계 등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시간과 공간이었기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쓴 내용을 저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하고 고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꺼내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도 넉넉한 힘이 되는 수행자이기를 발원하며 혼사를 대신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卍

『치문縉門』, 출가수행의 시작

송운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햇살을 마중하러 보리수 수목원으로 가는 길에서 대자연의 無情說法을 듣게 된다. 넓게 펼쳐진 화엄의 세계는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묵언 수행자랑 닮았다. 맑고 고운 새들의 노랫소리 따라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가 매서운 추위에 놀란 진달래꽃을 보면서 옅은 미소를 찬바람에 실어 보낸다. ‘저런 길 보고 철없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원만회향이기를 발원하면서 시작한 날마다 새로운 날? 때로는 아프기도 했던 아쉬움의 1년이었다.

『縉門』가운데 『瀉山大圓禪師警策』은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과 함께 佛祖三經의 하나이다.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란에 『縉門』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30여년 만에 다시 만난 주옥같은 말씀들은 金堂의 찬 칸 방에서 수업을 했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출가 수행자의 발심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당시 화엄반은 채경당, 화엄하반은 화석죽 - 지금의 괴하당, 사교반은 설현당, 사집반은 금당, 치문반은 찬 칸 방에서 수업이 있었다.)

발심출가자들이 승가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배우는 과정에 削髮染衣曰縉, 入山修道曰門이라는 『縉門』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大旨는 ‘退浮情滅邪業’이다. 들뜬 생각을 절제하여 사된 행동

을 경계한다. 즉 출가한 자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세속의 번뇌 망상과 행동을 끊어버리고 見性成佛하여 衆生濟度하겠다는 뜻이다.

高僧大德과 聖賢들의 말씀으로 편집된 이 책은 신심을 굳게 하고 올곧은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그 본문 가운데 『瀉山大圓禪師警策』이 처음으로 나온다. 당시 수행자들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출가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정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의 수행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침서로 각 승가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학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외우게 하고 학기가 끝날 무렵 通講을 받는다.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인 대원 선사(771-853)는 六祖 혜능 스님의 제자 남악회양 - 마조도일로 이어지는 백장회해 스님의 제자이며 禪宗五家 가운데 瀉仰宗의 開祖이다. 위앙종의 특징을 온화하고 섬세하여 선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警策』을 보면 후학에 대한 老婆心を 읽을 수 있다.

먼저 출가한 수행자들의 발걸음은 세간을 뛰어넘고자 마음과 형상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처님의 씨앗을 꽃피우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다스려야 하며, 네 가지 은혜, 곧 부모, 스승, 국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三界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願力을 가져야 한다.

머리를 쥐고 먹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 출가가 아니다. 몸의 모습과 같이 마음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 했던 言行을 그대로 하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게을리하면 비록 모습은 바뀌었으나 헛되이 승려의 대열에 끼어 있는 것이다.

無常하다는 것을 모르고 是是非非로 일생을 보내면서 十方의 정성 어린 시주물만 소비한다면 쌓여가는 業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마음의 티끌은 쉽게 막히어 움직이는 곳마다 걸리게 된다.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기만하는 수행자가 되었으니 이 누구의 허물이며, 출가한 너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마음은 妙하여 얻기 어렵지만 간절하

게 返照하는 가운데 문득 正因을 깨달으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거짓이름인 줄 알고 머무르지 말라. 생각을 쉬고 대상을 잊어버리니 마음과 경계가 고요하다. 나의 생각이 사물에 머물지 않는데 경계가 어찌 나를 방해하겠는가?

法性이 흐르는 대로 맡겨서 '지금 여기' 모자람이 없으면 法服을 잘못 입은 게 아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世世生生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분명 기약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이들의 龜鏡이 될 것이다.

또한 수행자는 스승과 도반이 매우 중요하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성취시켜 주는 이, 수행자답게 해주는 이는 朋友이다. 어진 벗을 가까이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어 진다.'라고 한다. 때로는 是非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으며, 대립과 갈등도 일어난다. 그렇지만 수행의 길에 소중한 佛緣으로 만났으니 서로서로 警策하여 태어나는 곳마다 함께 자비로운 法侶가 되자고 발원한다.

고산지원 법사(976~1022)는 「遺誡」 학인들에게 보이는 글에서 '雪山동자의 求法을 배우고, 53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善財동자처럼 걸어가라. 이름을 팔지 않아도 이름은 저절로 드날려질 것이며, 대중은 불러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모일 것이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몸을 다스리고, 일을 맡아 나아가게 되면 천하를 다스려서 법의 등불을 밝히는 대장부'가 되라고 한다. 道를 求하는 첫 마음은 있으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하였으니 처음 발심한 수행자는 꼭 명심해야 할 일이다.

소중한 法緣들이 함께 하는 운문의 福된 도랑에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德에 禮敬드리고, 곳곳에서 해야 할 일을 如一하게 精進하고 있는 가슴 따뜻한 주인공들의 六根이 편안하니 가고 머무름이 고요하며, 한 생각 일어나지 아니하니 萬法이 함께 쉬는 날마다 좋은 날이다. ॐ



그림 / 사미니과 지영

선시禪詩와 그사적史的 개관概觀¹⁾ 1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I. 머리말

II. 선시의 특징과 전개

1. 선의 의미

2. 선시의 시원始原과 특징

III. 고려 조선대 선시의 전개양상

IV. 맺음말

그러나 불립문자를 표방한 선사들은 마음을 전하려
면 역시 언어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에 봉
착하게 되고 오히려 수많은 선어록과 선시를 남기
게 된다.

이러한 선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
도구가 사용되는데 대부분 역설과 모순이라는 선적
禪의인 언어관을 선두先頭에 두고 선시를 접근하고
분석해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선과 선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 선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시의 특징과 전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전파되는 동안 역사적 전개나 수행의 지향, 지
역적 특성에 따라 초기, 대승, 밀교, 티베트, 중국,
한국불교 등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였다. 특히 중국
에 전래되어 천대天台, 화엄華嚴, 선禪 등 새롭게
중국화 된 불교로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당송시대
를 풍미하며 사상계뿐만 아니라 문화전반에까지 강
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선 혹은 선사상이다.
이 선에 의해 선시라는 독특한 선시문학이 형성되
는데 선시의 특징과 그 변화되는 양상을 살피기 위
해서는 선의 본래적 의미와 중국화 된 선, 선시의
출현과 그 전개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1. 선의 의미

선이란 원래 범어의 dhyāna, jhana의 약음사어
略音寫語로 ‘심사숙고하다’는 뜻을 지니며, 음역인
선나禪那, 의역인 정려靜慮 등의 약형略形이다. 선
나는 계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의 하나인 정에 해당되
는데 정은 종종 삼매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삼매
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다’, ‘한 군데 두다’는
뜻이며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다’는 의미로 등지

1. 머리말

불교에서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교외별
전敎外別傳·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
佛을 표방한다. 진리인 법은 언어적 사랑분별을 통
해서는 증득할 수 없고 언어의 분별을 초월하여 마
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이다.

等持라고도 한다. 이들 개념은 사유와 실천을 함께 하는 수행법이다.

초기 경전에는 마음의 주체(識) 등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정화하는 방법으로서 선정을 닦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행법은 마명馬鳴(A.D. 80년경), 용수龍樹(A.D. 150년경) 등에 의해 대승불교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미륵彌勒과 무착無著(A.D. 4세기경)은 선정을 “사마타는 몸과 마음을 경쾌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한다. 이를 신심안정이라고 하며 이 경안輕安은 선정을 닦아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경쾌하고 안락한 것”²⁾이라고 하여 지止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하나의 수행방법이었던 선이 6세기 초 보리달마가 서래西來하여 이입사행二入四行이라는 선을 주창하였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이입理入은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그대로 선이라 하기도 하고 그 본각진성을 오수悟修하는 것을 선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 본각진성을 선이라 표현한 것은 초기 인도적인 선나나 사유수思惟修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수행법(修)과 그 수행으로 도달한 깨달음(悟)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달마선이 혜가慧可, 승찬僧粲, 도신道信, 홍인弘忍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혜능慧能(638-713)과 신수神秀(?-706)에 의해 남·북 양종으로 나누어졌다.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을 이루고 이들이 중국 선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중국선의 전개과정에서 깨달음의 세계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무상의 경지로서 명상名相과 전법傳法이 불가능하고 다만 철저

한 자증자오自證自悟를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는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오성론悟性論이 선의 종지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선의 특징이 생성되었다.

2. 선시의 시원始原과 특징

대부분의 불전에는 시적인 운문이 삽입되어 불교시가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데 12분교로 분류되는 기야祇夜와 가타伽陀가 그것이다. 『법구경』이나 『숫타니파타』에서 보이는 운문韻文의 송頌과 대부분의 대승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계송이 그러한 형식이다. 이 계송은 오언시가 많고 철리哲理를 담고 설교적說敎의이다. 또한 일상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고 직관적이며 일상에서 소재를 취하여 깊은 종교적인 진리를 은유하고 있다.³⁾ 초기경전에 보이는 계송이 대부분 그러한데 『빈야경』과 『유마경』, 『금강경』의 ‘공空’에 대한 비유는 이러한 형식을 잘 보여준다.

一切有爲法 모든 생멸이 있는 법은
如夢幻泡影 꿈·환·거품·그림자 같고
如露亦如電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應作如是觀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니라.⁴⁾

『금강경』에 나오는 한 계송으로 공을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그 개념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환영, 불꽃, 물속의 달, 포말, 허공 등에 비유되어 독자로 하여금 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초기대승경전에 수록된 운문들이 한시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한역

1) 이 논문은 권동순(원법), 「조선조 18세기 선시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가운데 일부를 요약 발췌하였다.

2) 『해심밀경』 권5 (『大正藏』 16, p.697c)

3) 안대희(1999), 『18세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p.273

4) 鳩摩羅什譯, 『金剛般若波羅密經』 권1 (『大正藏』 8, p.752a)

되었고 선사들도 자신의 견처見處를 운문의 형식에 담아내었다. 『신심명』이 대표적 초기작이며 이후 선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⁵⁾ 그러다가 7세기에 들어와 신수⁶⁾와 혜능⁷⁾에 의해서 본격적인 오언五言의 계송으로 창작되었다. 혜능의 계송은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인위적 조작을 필요치 않으며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돈오의 선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된다. 이후 선사들에게 전등傳燈이나 시법示法, 제자를 가르칠 때 간단한 계송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心地含諸種 마음은 모든 종자를 머금어
遇澤悉皆萌 비를 만나면 다 싹을 틔우네.
三昧華無相 삼매의 꽃은 본래 상이 없는데
何壞復何成 무엇이 없어지고 다시 이루어지랴.⁸⁾

석두희천石頭希遷과 쌍벽을 이룬 마조도일馬祖道一이 남악회양南嶽懷讓에게서 받은 전법계이다. 이 계송에서는 본격적으로 ‘삼매화三昧華’ ‘무상無相’ 등의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어 선종의 상징성이 드러난다.⁹⁾ 그런데 본격적인 선시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는 성당盛唐시기 만개한 당시唐詩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 시기는 선사들과 시인들이 빈번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시가 중요한 공유의 도구가 되었다. 특히 시인들은 ‘이시우선以詩寓禪’을 하였던 선승과 달리 ‘이선입시以禪入詩’의 선시를 창

작하였는데 한산시寒山詩에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湄心似秋月 내 마음은 가을 달 같고
碧潭清皎潔 푸른 연못은 맑고 깨끗하네.
無物堪比倫 감히 견줄 물건 없거늘
教我如何說 나에게 무얼 말하게 하겠는가.¹⁰⁾

위 시는 한산의 오도시悟道詩라 할 수 있다. 가을 달과 맑고 깨끗한 연못으로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이 청정한 자리는 말로 드러내 보일 수 없음을 보였다. 그런데 위 시는 아직까지는 선종의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의 경지와는 거리가 있는 이지적인 시풍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산의 시가 출현하고 교연皎然 등의 승려가 나와 본격적인 선시를 선보이는데, 이는 종래의 계송보다 한시형식을 통한 상징성은 물론 뛰어난 문학성까지 겸비하였다. 또한 선의 매력 때문에 유가의 시인들도 선기가 가득한 시창작을 했다. 왕유王維·이백 등이 특히 그러했으며, 이후 맹호연孟浩然과 두보杜甫를 비롯하여 중당中唐의 백居易白居易와 한유韓愈 등으로 이어지면서 선적인 경향의 시가 발전을 거듭하였다.¹¹⁾ 송대에 이르러 야보도趙治父道川이 『금강경』을 송으로써 해석하여 선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¹²⁾

5) 김미선(2010), 「선시의 특징과 展開樣相」, 『東方漢文學』 제42집, 동방한문학회, p.107

6) 청화 역주, 혜능저(2008), 『六祖壇經』, 광문출판사, p.57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

7) 청화 역주, 혜능저(2008), 위의 책, p.67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8) 延壽, 『宗鏡錄』 권9 (『大正藏』 48, p.940a)

9) 선종의 조사들인 馬祖나 趙州 등의 語錄에서는 偶頌보다는 역설적이나 비논리적인 문답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법을 보였기에 이들 어록에서 계송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10) 『寒山詩集』 1 (『嘉興藏』 20, p.654a)

11) 송행근(2000), 「선종의 唐代시와 시문에 끼친 영향」, 『白蓮佛敎論集』 10집, 백련불교문화재단, p.503

12) 석지현(1975), 『선시』, 현암사, pp.26~27



설두중현雪寶重顯(980~1052)이 『송고백칙』을 지었는데 뒤에 원오극근圓悟克勤(1063~1135)이 『송고백칙』에 평창評唱, 수시垂示, 착어着語를 한 『벽암록』을, 천동정각天童正覺(1091~1157)이 『백칙송고』을 지어 문답의 내용을 시로 풀어내었다. 또한 선종의 수행의 과정을 노래한 북송시기 곡암廓庵의 〈십우도〉등이 창작되어 선시의 일대장관을 이룬다. 아래는 원오극근의 시이다.

井底泥牛吼月 우물 밑 진흙소가 달을 보고 울고
雲間木馬嘶風 구름 사이 목마가 바람 향해 운다.
把斷乾坤世界 하늘과 땅 온 세계를 끊어버리니
誰分南北東西 누가 남쪽 동서를 분별하는가.¹³⁾

이 시에서 '진흙소', '목마'는 본래면목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이처럼 언어구조가 해체된 상징화된 시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철저히 자증자오自證自悟할 때 비로소 시가 드러내고 있는 경지를 알 수 있게 한 시들이 선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징, 역설, 부정을 통한 절대긍정, 비논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선시의 전범典範은 원오극근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전의 조사들이 남긴 시들은 선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이 남긴 게송이 시의 영역 안에 포섭된다면 이를 선시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들의 시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이용하되 니우·철우·석녀 등의 언어나 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언어체계만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오히려 선사들의 어록이나 공안집에서 보이는 선문답이 더욱 선종의 특징적 면모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득 가능성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로 선시의 영역이 설정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선사의 선법이 담겨 있다면 어떠한 시적 표현을 막론하고라도-그것이 일상어이든 비상식이든-선시의 전범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선이 한 반도에 전래되고 더불어 선시도 창작된다.¹⁵⁾

〈다음호에 계속〉

13) 『圓悟佛果禪師語錄』 19 (『大正藏』 47, p.616b)

14) 이남호(2003), 「시의 언어, 선의 언어」, 『세계의 문학』, 여름호, pp.184~201에서는 “대체로 도 자체를 말하려는 시는 언어 사용이 비상식적이며 도의 주변적 상황을 전달하는 시는 그 언어 사용이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불립문자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언어의 규범을 무시한 선종의 언어관에 기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修道者의 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선시 가운데는 일반적인 시의 독법으로 이해가 되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는 것들도 적지 않다. 즉 선시는 일반적인 시의 언어 사용법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난 언어 사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는 붓다담시와 중국 선종의 언어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의 한계를 확장하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대승기신론』의 훈습熏習에 대한 고찰 1

혜선 / 사교과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신론』에 나타난 훈습

1. 『기신론』 개요와 훈습의 의미
2. 경론에 보이는 훈습
 - 1) 초기불교와 유식에서의 훈습
 - 2) 능가경에 나타난 훈습의 단편
 - 3) 『능엄경』과 『법화경』에서의 훈습
 - 4) 선어록에서의 훈습
3. 『기신론』의 사중훈습四種熏習
 - 1) 육염심六染心과 훈습작용
 - 2) 염법훈습染法熏習
 - 3) 정법훈습淨法熏習
4. 훈습을 통한 자성청정심 회복

II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기자신을 알고자' 하는 데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막막한 길에서 만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하 『기신론』)은 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공부의 지침을 간결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준다. 『기신론』은 대승종교大乘終敎에 해당하는 논으로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일심一心에 귀결시킨 실천수행서이다.

본 소고는 한문불전 과목인 『기신론』 발표수업 자료로 훈습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염법훈습보다는 정법훈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오염된 마음이 다시 청정성을 회복하여 법신을 현현顯現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II. 『기신론』에 나타난 훈습

1. 『기신론』 개요와 훈습의 의미

■ 『기신론』 개요

『기신론』이라는 제명을 해석하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서'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승¹⁾이란 무엇인가? 『기신론』 입의분설義分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하연(大乘)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대승의 법法의 체를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대승이라는 명칭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법은 바로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함한다."²⁾고 하였다. 곧 대승이란 중생이고, 대승에 대한 믿음은 즉 '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니 이것으로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대승불교의 전반적인 대의를 적용시키면 '현상세계 일체 만물의 근원인 나의 마음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신론』에서는 '자신이 현상세계 일체 만물

의 근원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일체 생명을 살리는 대승 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기신론』은 이 마음(一心)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 본체體, 드러난 상相, 작용用, 염오의 과정과 환멸還滅하는 과정 등을 보여주고 있고, 원효의 해동소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여 해석해 주고 있다.

『기신론』의 저자³⁾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서사시로 풀이한 『불소행찬』의 저자인 마명보살로 알려져 있다. 『기신론』은 『능가경』에서 설하였던 여래장⁴⁾과 아뢰야식의 일원설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중국의 화엄, 천태 등 여러 종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에게 중국 양나라 시대의 진제眞諦(paramartha 499~569)⁵⁾삼장三藏의 한문 번역본이 널리 읽히고 있고 해원, 법장, 원효의 3대 주석서가 있다.

『기신론』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 머리에 삼보에 귀의하는 귀경계歸敬偈를 서분으로, 발원문에 해당하는 회향계廻向偈로 유동분流通分을 삼고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정종분正宗分은 다음과 같다.

- (1) 인연분因緣分 :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떠나 구경락究竟樂을 얻게 하기 위함

이라는 인연총상因緣總相을 시작으로 여덟 가지의 인연으로 이 논의 성립되었음을 드러낸다.

- (2) 입의분立義分 : 논서의 주제(대상, 법)를 드러내는 단락이다. 논이 다루고자 하는 법은 중생심으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한다' 하고, 중생심을 대승이라고 하는 뜻(義)을 삼대(體大, 相大, 用大)로써 설명하고 있다.

- (3) 해석분解釋分 : 중생심이 대승임을 증명하는 단락이다.

① 현시정의顯示正義 : '바른 뜻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일심一心을 이문二門 즉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눠 설명한다. 다시 심생멸문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진여眞如와 여래장如來藏, 각覺과 불각不覺, 본각本覺과 시각始覺, 삼세三細와 육추六麤 그리고 훈습설熏習說 등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② 대치사집對治邪執 : 대승법을 배우는 범부들이 자아의 존재에 집착하는 인아견人我見과 오온 등의 생멸법이 있다고 보는 법아견法我見이 있음을 밝혀 이를 치료하여 사된 견해와 집착을 버리도록 한다.

1) 대승大乘이란 곧 중생심衆生心이다. 중생심은 번뇌 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지만, 그 근본은 진여본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래장如來藏, 佛性사상으로 제시하고 선근 공덕을 실행하는 불도 수행의 방향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한다. 중생심은 보살이 원력과 발심 수행하며 불도를 이루는 토대이며, 부처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 무대이다.

2) 원문 : 摩訶衍者是 總說有二種하니 云何爲二오 一者는 法이요 二者는 義니라 所言法者是 諸家生心이니 是心이 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3) 용수 이전의 '마명보살馬鳴菩薩'(150~250년경)의 저술이라고 하나 이설이 많다. 용수 이전이라고 하면 반야, 유식, 여래장사상이 성립되기 이전의 인물이므로 『기신론』의 저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과 인도 찬술 보다는 동아시아적 느낌이 강하여 중국이나 신라 찬술설도 제기되고 있다.

4) 여래장 : 대승경전에서는 불성, 법성法性, 진여眞如, 자성정정심自性清淨心, 일심一心이라고 하며, 일체 중생이 본래 여래장, 불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즉 여래장을 깨달아 확신하면 부처의 지혜로 여래가 되며, 여래장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게 된다. 대승이란 대승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장을 말하며, 일체 중생이 각자 여래의 태아(如來藏)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확신하고 발심 수행하는 것이 大乘起信의 의미이다.

5) 번역자에 대한 문제도 학계에서는 이설이 많은데 진제眞諦로 역자를 처음 밝힌 것은 唐의 현수법장眞實法藏(643~712)의 『大乘起信論義記』 上卷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삼대소三疏에 해당하는 정명사淨影寺 혜원慧遠(523~592)의 『大乘起信論義疏』와 元曉(617~686)의 『大乘起信論疏』에는 번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③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모든 부처가 증득한 깨달음의 길을 목표로 하여 발심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の 세 발심으로 나눠 설명한다.

(4)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부정취不定聚 중생을 위한 사종신심四種信心(진여, 불, 법, 승)과 5바라밀(지관견수止觀兼修 - 진여문을 의지한 사마타, 생멸문을 의지한 위빠사나 수행) 및 정토에 왕생하는 염불수행의 방편을 설명한다.

(5)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기신론』의 가르침을 지니고 수행하면 위없는 불도를 깨달아 부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음을 보여 불발수행을 권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교의 일체 요의要義와, 수행실천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수행의 강요서가 바로 『기신론』인 것이다.

■ 훈습의 의미

훈습熏習의 사전적 정의는 스며들 훈熏, 물들 습習으로 스며들어 물들게 한다는 뜻이다. 어떤 것을 알게 모르게 물들여 같은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기신론』에서는 훈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훈습의 의미는 마치 세간의 의복이 실제로는 향기가 없지만 만약 사람이 향으로써 스며들게 하고 물들게 하면 향기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熏習義者。如世間衣服實無於香。若人以香而熏習故則有香氣。)

위의 정의와 같이 미혹과 깨달음의 일체 현상들이 자신의 세력을 다른 것에게 훈습시키는 것을 향기가 옷에 배이는 것에 비유했다. 설명을 위해 염오되는 과정의 반대입장에서 청정해지는 과정을 논하고는 있지만 사실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옷에 배인 나쁜 냄새를 인식하고 냄새를 지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염오된 향기를 지우면 본연의 자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론에 보이는 훈습

1) 초기불교와 유식에서의 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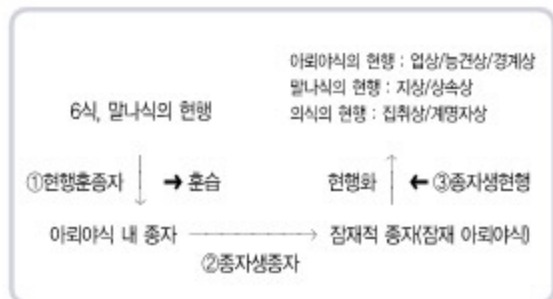
■ 초기불교의 훈습

소승 경량부에서는 물질(色)과 마음(心)이 서로 훈습해 합한다고 하여 색심호훈설色心互熏說을 주장하고 있다. 종자가 유정에 머무를 때, 색과 심의 종자가 각기 분화되어 별도의 종자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면서 하나의 유정의 몸을 상속시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마음과 신체는 각각 다른 종자를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훈습하며, 또다른 방식으로 현행한다고 본 것이다. 신체의 현행으로부터 심종자가 훈습되기도 하고 마음의 현행으로부터 색종자가 훈습되기도 하며, 또 심종자가 신체로 현행하기도 하고 색종자가 심리 상태로 현행하기도 한다고 본다.

■ 유식에서의 훈습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고와 낙을 이전에 행했던 업의 과보로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불교 교리이다. 그런데 유식불교는 그러한 업이 다시 행위자 자신의 미래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힘이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훈습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는데 신구의身口意 3업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행現行’이라 부르고, 그것이 다시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미래의 행위를 유발하는 ‘종자種子(씨앗, bīja)’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현행이 그 습기 또는 종자를 아뢰야식에 저장하는 작용이 바로 ‘훈습’ 개념이다. 아울러 이렇게 훈습된 종자는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현행現行되며, 종자로부터 생겨난 이 현상세계는 그 영향력(습기)을 아뢰야식에 남겨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내어 결국 종자에서 종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①현행熏종자現行熏種子, ②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 ③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 설명하는 윤회, 유전流轉의 원리이다. 반면 『기신론』에서는 종자가

이행되는 경로를 모두 혼습으로 간주하였다.



〈표 1〉 종자의 이행 경로(한자경, 『대승기신론 강해』)

2) 『능가경』에 나타난 혼습의 단편

보리유지의 『입능가경入楞伽經』 제7권에 ‘외도 범부 중생들이 자기에게 본래 구축된 여래장을 여실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외도들은 시작도 없는 세상을 오면서 중생이 허망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회론에 집착하여 혼습을 받는다. …不能如實見如來藏, 以諸外道, 無始世來, 虛妄執着 種種戲論, 諸熏習故⁶⁾’라고 무명 혼습을 설한다.

담무참의 『능가경』 4권에 ‘비롯함이 없이 허망하게 악습에 혼습된 바 無始虛妄 惡習所熏⁷⁾’이라고 말하며, 실차난타의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제5권에는 ‘비롯함이 없이 거짓되고 허망한 악습에 혼습된다. 無始虛偽 惡習所熏’이라고 표현한다. 진여眞如는 자체의 어떤 고정된 형상과 모양이 없는 무상無相(法界一相), 무주無住, 무위無爲, 무법無法, 무념無念으로 번뇌 망념에 오염된 상태의 모양(염상染相)은 없지만, 중생의 무지 무명에 의거한 혼습으로 번뇌 망념에 오염된 상태(염상染相)가 된다.

본래 불이不二, 일상一相, 일여一如, 여여如如, 여래如來, 자연법自然法인 진여의 청정한 마음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인 선악, 자타, 범성 등 이원론적인 분별심으로 차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3) 『능엄경』과 『법화경』에서의 혼습

『수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이루는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부르는 방편 수행을 시각始覺⁸⁾이라고 하며,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등 제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신의 진여본심의 소리를 진여본심의 귀로 또렷하게 듣고 자각(聽覺)하는 것이 본각本覺이다. 그래서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이 진여본심의 지혜가 된 경지를 염불삼매念佛三昧 또는 진여삼매眞如三昧라고 한다.

이러한 삼매의 수행체계를 『기신론』의 진여자체상혼습작용에 근거하여 『수능엄경』에서 ‘염불하는 자기 목소리를 돌이켜 진여자성을 듣고 자각하도록 하라(反聞聞自性 性成無上道)’고 설하고 있다.

천태지의天台智顗는 『관음현의觀音玄義⁹⁾』 상권에서 부처의 본성에도 십법계十法界가 내재하고 있다는 성구설性具說을 주장한다. 부처의 본성에 삼악도三惡道の 성질이 전혀 없다면 삼악도 중생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한 순자의 성악설性惡說도 이러한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진여혼습 속의 망심혼습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여 보리도에 나아가게 하는 포고발심怖苦發心の 혼습이다. ॥

〈다음호에 계속〉

6) 『대정장』 제16권 556쪽 中

7) 『대정장』 제16권 510쪽 中

8) 간경經수행이나, 어록을 읽고 선승들의 뛰어난 정법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간화선 수행이 모두 시각적인 방편 수행이며, 발심수행이다. 송대 대혜종고大慧宗杲는 간화선의 수행체계도 시각始覺적인 구조라고 하였다.

9) 수대 천태지의가 강술하고 문인 관정이 2권으로 기록하였다. 『대정장』 제34책에 수록. 천태 5소부 중 하나이다. 관음현의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이다

경주 문흥사 모전탑 외형을
그대로 확대시켜 만든
포교원 건물



溫故知新的 시간

삼선포교원 원장

묘순妙詢 스님 탐방

법여 / 사교과

연말의 어느 날, 묘순 스님을 뵈러 서울을 찾았다. 조용한 주택가에 담쟁이가 얹힌 건물에는 삼선사三仙寺라고 작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가 2014년까지 통학강원 삼선승가대학이었고, 현재는 삼선승가대학원 및 삼선포교원인 건물이다.

옛 석탄 난로, 빨간 카펫이 깔린 계단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 나무 바닥. 그 하나하나가 따뜻한 옛날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향기를 발하고 있다. '자비회사慈悲喜捨'의 문자 아래에 원장이신 묘순 스님이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셨다. 멀리서 오는데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학생들을 맞이해 오신 그 모습이 아닐까.

"여기는 매일같이 와서 공부하고 가고,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오거든요. 그래도 비 오는 건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미끄럽고.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강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나(하하하)...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는 거 보면 또 안타깝잖아요. 눈 맞고 비 올 때 그럴 때..."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그런 세월이었다.

아침 세 시에 일어나 각자의 사찰에서 모든 일을 해내고 여섯 시에 등교하는 학인스님들. 열 시까지 수업 받고, 다시 각자의 절에 돌아가서 나머지 일과를 해내고, 다음 날 또 아침 여섯 시까지 오고, 휴강 날은 보름과 초하루 이틀밖에 없었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배우는 것은 일반 전통 강원과 똑같았다.

"근기가 아니면 못해요."

70년대 말 당시에는 강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귀족계 수계의 조건이 아니었다. 그런 시절이니만큼 학인스님들의 신심이 견고했던 것이 아닐까.

화운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학인시절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운수납자로 선방을 다니는 것이 스님의 꿈이었다.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교육에서 만난 지광 스님의 권유에 통학강원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다.

“부처님 말씀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둘이도 가지 말고 혼자 가라.’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역시 부처님 경전을 수행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법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선방에 가려는 마음을 접었죠.”

출가하고 나서 온사스님을 모시고 사중일도 하고 바쁘게 살다보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구니스님들이 많았다. 그 스님들이 포교할 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통학강원은 전례 없는 새로운 시도였다.

“그 땐 4년제는 아니었고요. 물론 운문사나 그런데도 4년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때는 그냥 경전 마치는 때가 졸업인 거예요. 사교, 대교 그렇게 해서 화엄경 끝나는 때가 졸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원에서 화엄경 보는 것을 이력履歷이라고 했다고 가르쳐주셨다. 그래서 화엄경을 다 마친 학인들을 이력종장履歷宗匠이라고 불렀다. 종장은 ‘정한 바 경전經典을 다 배운 종사宗師’, 선지식이라는 뜻이다.

“화엄경 보는 학인들은 부처님같이 대한다. 삼현십지三賢十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불대접如佛待接이라고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화엄경을 배울 기대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우리들. 반면에 “4년이 지나면 그렇게 선지식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머리를 스쳤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한 과목을 끝내면 새로운 과목으로 넘어갔다. 말하자면 경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배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원이 생기고 학제學制를 일반대학처럼 해서 4년에 끝낸다 하니까 바쁜 거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다보면 막 넘어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강원에서 공부하던 거 보면, 4년 동안 하 기란 벅차더라구요.”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요즘. 옛날 학인들은 한 경전을 가지고 문리文理(글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가 날 때까지 다독다사多讀多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데이터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학인 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조화된 포교원 법당



석굴암을 본뜬 동과 감실이 있는 법당.
법회 및 대학원 강의실로 사용된다

님들은 알아야 할 것, 해야 될 것이 많다보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교를 현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현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

“현대화와 세속화라는 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좋으면 현대화인데 잘못되면 세속화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또 개방적인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대화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아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고칠 점은 과감히 고쳐야 하잖아요. 그게 현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것을 내버리고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대화고 여기까지가 세속화라는 건 자기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다보면 자기가 저절로 느끼게 돼요.”

스님께서는 대중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될 것이고, 잘 판단되면 저절로 모난 사람이 안 되고 대중 뜻을 잘 따르게 된다고.

아직도 공부가 많이 부족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스님.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야 처음과 끝이 똑같아 질 수 있다고.

“가는 목적은 다 같아요. 출가해서는 다 좋은 수행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잘 회향하는 거거든요. 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구요.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은 초심을 잃고 무슨 일을 잘못했나 돌아보는데 잘못할 때가 많더라구요.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고쳐나가야죠.”

스님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하게 됐다. 이런 온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안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던 인연에 깊이 감사한다. ☺

심심왕래 心心往來

존경하는 명성明星 스님께.

구름(雲門) 속 호랑이산(虎踞山)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너른 가지를 드리우니 헤아릴 수 없는 눈 푸른 납자들이 그 그늘 아래서 안심입명을 얻었습니다. 60년을 한결같이 후학 양성에 매진한 삶을 통해 스님은 가르침이 배움이요 이타利他가 그대로 자리自利인 대승보살의 이치를 몸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무 한 그루가 능히 숲을 이루었거니와, 그 동안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어땠겠습니까

조계와 천태가 함께 일군 이 땅의 대표적인 수행도량 운문사. 정화불사로 성취한 맑은 길(淸道)에 비구니 도량을 연 선배스님들의 뜻은 샛별(明星)로 빛나는 스님을 통해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모든 후학들의 지남指南이고 큰 선지식이신 우리 명성 스님.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불기 2561(2017)년 세모歲暮에
대하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춧 드림



회주스님 法下

[illegible]





오백전기도회향법회에 가시는 회주스님과 사서 세광 스님

법계의 대자유인

진광 / 운문사 주지

어느 해 법계의 밝은 별 하나
구름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밝은 별이 어둠을 밝히니
세상의 작은 별들이 모두 한 곳으로 흘러왔습니다

‘매사에 진실하라!’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의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정확하고 공명정대하신 스님
외형은 질서 있게 내면은 자유롭게
2천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기르신 스승님

‘육교여 선자교(欲敎餘 先自敎)’
다른 이를 가르치려면
스스로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60여 년을 한결같이 가르치는 일을
하루도 결(缺)한 적이 없으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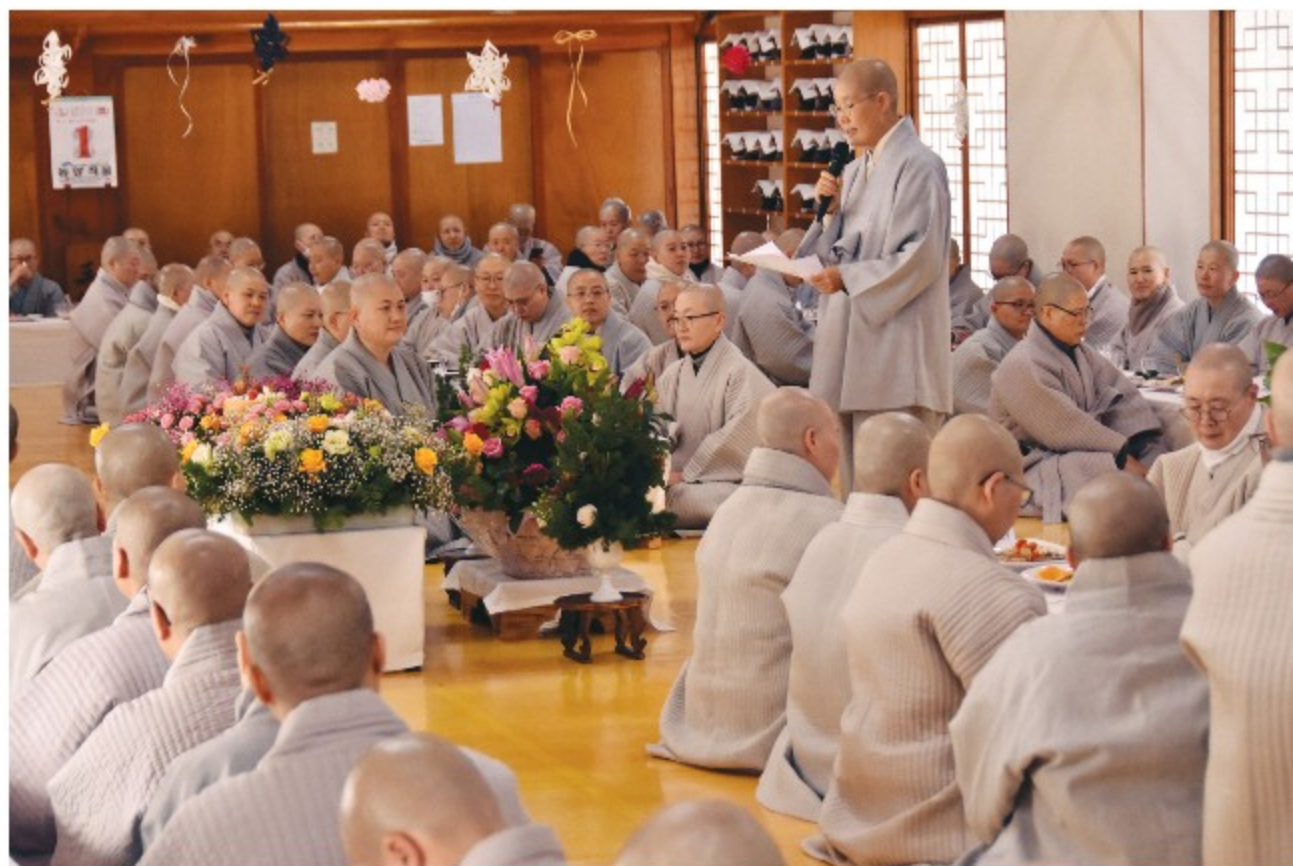
그 수많은 생애의 날들을 운문을 위해
몸도 마음도 다 바치셨습니다
호거산 운문의 도량 곳곳
스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데 없고
땀방울 스미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스님의 일생은 작복(作福)이었으되
스스로 복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은 복을 남김없이 돌려주셨으니
마침내 법계의 대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자유인 명성 회주스님.
무궁하여라! 그 깊고 크신 공덕이여 ॥



명성화주스님
"미수"를
축하드립니다



“

지금까지 제 생일은 운문사를 떠나 몰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합동결혼식처럼 합동생일잔치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 밝을 명, 별 상’ (明星)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명성’입니다. 눈 밝고 충명한 별입니다.

”



2017, 운문사 목판 인출

동우 / 운문사 편집국장

1. 운문사 소장 목판

1) 소장 목판 현황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쓰고, 디지털 화면에 쏟아지는 활자의 범람 속에 살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황권적축의 목판본 경전은 전통 승가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매우 특별한 자료가 되어간다.

목판은 인쇄하여 간행하기 위해 글을 새긴 판목을 이르는 말로, 사찰에서 간행을 위해 새긴 목판은 대부분이 불교경전이기 때문에 보통 경판經板이라고 한다.

불교 경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인사 외에도 각각의 사찰에서 필요한 책을 판각해 왔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국 사찰의 소장 경판수가 대략 3만여 판에 이른다고 한다. 운문사에도 13종 321판의 경판이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 16세기에 제작된 것들인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경 판 명	간행년	판 수	장 수
1	불교_경장_경집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588	104	205
2	불교_찬술_선서	계초심학인문(합각)	1588	17	33
3	불교_찬술_선서	법집별행목절요병입사기	1588	37	75
4	불교_찬술_선서	치문경훈	1588	90	174
5	불교_의례_의식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1659	4	8
6	불교_의례_의식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	4	8
7	불교_의례_의식	시다림작법문	1588	8	16
8	불교_의례_의식	운수단가사	1588	15	30
9	불교_의례_의식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	1515	33	65
10	불교_의례_다라니	다라니	-	1	2
11	불교_사지_사적	경상도 청도군동호거산운문사사적	1718	5	10
12	불교_사지_사적	청도운문사산록	-	1	2
13	불교_사지_사문서	운문사불량위답질	-	2	2
총 계				321	630



승유억불을 표방한 조선시대에도 불교 경전의 간행은 활발하였다. 세조는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을 인출하였고, 『원각경』, 『능엄경』 등의 주요 경전과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의 불서를 인쇄본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왕실을 대신하여 지방의 주요 사찰들이 목판 제작 및 경전 간행을 대량으로 실시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해인사에도 국가 제작의 고려대장경판 이외에 사찰 제작의 제경판이 5,987판이 소장되어 있다.

사찰에는 각수刻手와 지장紙匠·목장墨匠 등의 작업 인력과 목판 인쇄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러한 목판 인쇄술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전승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운문사에서조차 역시 이러한 목판의 판각과 인쇄 작업이 행해지고 있었고, 다행히도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는 경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2) 운문사 목판의 특징

운문사 소장 목판 중 유일한 경장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1588년 운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1611년 하동 쌍계사판과 1655년 순천 선암사판과 함께 현존하는 귀중한 경판이다. 운문사판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는 드물게 변상도가 있으며, 규봉종필의 『원각경약소』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운문사의 독자적인 판하本板下本을 마련하여 새롭게 판각한 것으로 쌍계사판과 체제와 구성을 달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수륙재 의식집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16~17세기의 판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1515년(중종 10) 간행된 운문사 판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승가일용식시록언작법』은 발우공양을 포함한 생활규범 절차들을 모은 것으로 사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집이다. 사찰의 다양한 의례 의식의 절차와 관련한 목판들이 꾸준히 판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고승들의 어록과 저술을 엮은 찬술서인 『치문경훈』, 『계초심학인문』 등은 주로 스님들의 교육을 위한

강원교재로 사용되던 것으로, 이러한 찬술서의 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운문사가 조선시대부터 승려 교육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문사 소장 찬술들은 임진왜란 이전인 1588년 판각된 것들인데, 근대기인 1907년 운문사에서 『선문촬요』 상권(범어사 소장)이 판각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사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운문사에서 승려교육이 이루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연기를 짚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운문사 소장 목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판의 판면에 옷칠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의 오랜 보존의 비밀인 판목 옷칠이 16세기에 조성된 운문사 경판 다수에서 발견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게다가 다행히도 운문사 목판은 낙본 없이 모두가 완본이다.

각 판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가운데, 운문사의 경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2. 목판 인출

1) 인출 배경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 이루어지는 대작불사로,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하여 3,417개 사찰에서 총 163,367점에 이르는 불교문화재를 목록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사찰 소장의 목판에 대한 정밀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전국의 총 18개 사찰에서 4,201 점의 목판을 조사하였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 중요 목판을 인출하는 작업 중이다. 운문사에서 지난 2016년 10월 목판 조사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2017년 11월 12일부터 5일간 목판의 인출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찰 경판은 법보法寶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기록문화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운문사 소장 목판의 존재와 수장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운문사 대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그 현실을 말해준다.

외부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경판은 해충·미생물 등에 의한 손상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소실의 위험성까지 더하고 있다. 따라서 판면 자획의 마모도와 훼손 상태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경판의 원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이번 작업에서 『계초심학인문』 등의 경우 마모가 심하여 인출본의 상태가 매우 희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인출 과정

운문사 목판은 현재 비로전 불단 뒷벽의 좌우 수장 공간에 보존되어 있다. 평소에는 잠겨 있고 어두운 공간이라 목판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인출을 하기 위하여 수장고가 열리고, 조사공간으로 정한 운문사 전향각으로 경판을 이운시켰다.

목판은 오랜 기간 노출되지 않았던 상태이고 또한 과거 인출 작업 후 사후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단 먼지와 오염물질을 소제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부드러운 양모로 건식세척의 방법을 사용

하여 판면과 마구리를 깨끗이 소제한다.

목판은 오랫동안 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조된 상태에서 바로 먹을 바르면 먹이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출에 앞서 판면에 습기를 머금게 하기 위하여 물, 송연묵松煙墨, 천일염을 섞은 용액을 발라야 한다. 이렇게 균일하게 잘 보습된 판은 인출장에게 옮겨진다.

인출장은 솔에 먹을 찍어서 판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한지를 목판의 광곽 크기에 맞춰 가지런히 놓는다. 그 후 마렵으로 한지를 문질러 인출본을 찍어낸다. 문지르는 횟수와 힘의 강약에 따라 인출면의 농담이 좌우된다.

찍혀진 인출본은 먹이 번졌는지, 농담이 균일한지, 글자가 제대로 찍혔는지 등을 검수하는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재인출되며, 완성된 인출본은 먹이 충분히 건조되고 나면 판종별, 권장차별로 분류한다.



목판소제작업(건식세척)



판면보습작업



마렵으로 한지를 문지르는 인출작업



인출본 교정작업

3) 인출에 사용되는 재료

전통 인쇄술의 보존과 계승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인출 작업의 재료들은 중요하다. 이번 인출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식물성 점제)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전통한지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든 송연묵松煙墨을 재료로 하였다.

그리고 한지 표면을 문지르는 도구는 '마렵'이 사용된다.

이 마렵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지는데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빼서 일정량을 만든다.
- 따뜻한 물에 이 머리카락을 넣고 주무른다. 주무르면서 뭉쳐서 조여지는 정도를 손감각으로 감지하는데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조여 뭉쳐지면 마렵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뭉쳐졌다 싶을 때를 알아서 즉시 빼내야 한다.
- 빼낸 머리카락 뭉치를 말려서 실로 꿰맨다.
- 발집을 삶아 물에 녹인 밀랍을 그 표면에 칠한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이 마렵을 사용해야 섬세하게 감각된 목관 환자들의 자획과 미세한 점획까지 잘 찍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3. 인출 후 갈무리

인출이 완료되면 젖어 있는 목관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목관은 오랫동안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면의 먹물은 금방 마른다. 그리고 이번에 질 좋은 송연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관의 상태가 인출 후에도 매우 깨끗하였다. 이렇게 인출을 하고 나면 먹의 방부 효과로 인해 30년 정도 보존 상태가 좋아진다고 한다. 박물관으로서 모셔두는 일만이 보존은 아닐 수 있겠다.

인출 작업의 막바지, 디지털 촬영을 통해 인출본의 이미지 기록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출본은 목관의 현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판면의 글자훼손, 마모, 균열 등을 알 수 있어서 향후 사찰에서 목관을 관리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운문사 목관의 전적은 외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인출을 통해 운문사 소장의 새로운 전적문화재가 생긴 셈이다. 이번 인출본은 2019년에 일괄적으로 전통방식의 장황을 거쳐 완성된 판본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출이 마무리되고 다시 비로전의 수장고에 관목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문을 걸어 잠근다.

마모된 활자의 세월과 앞으로 덮여질 시간의 먼지를 모두 갈무리하면서, 2017년 운문사에서 이루어진 목관 인출 작업은 끝이 났다.



인터뷰 - 변영재 인출장

인출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마립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사찰 목판을 인출한 변영재 장인이 이 작업을 함께 하였다.

사찰 경관의 인출에 그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근현대 사찰 경관 인출의 역사일 것이다.

- 어떤 계기로 경판 인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1965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 전부를 찍는 인출 작업이 있었다. 5년 동안 진행된 이 작업에 당시 15세의 나이로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25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모두 죽고 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다.

당시 마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내가 가장 나이드 어린데다 손재주도 있어 보였는지 나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이후로 평생 이 기술을 써 먹고 있다.

1965년 이후 해인사 팔만대장경 전질을 찍는 일은 없었다. 당시 팔만대장경을 모두 27질을 찍었는데, 당시 한 질 가격이 480만원이었다. 외국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동아대 도서관 등 국내 대학도서관에 소장되기도 하였다. 이때 인출작업의 경비를 담당하고 주관한 것은 국가나 해인사 본사가 아닌 환속하여 마을에 살던 재가자 몇몇 분이였다.

- 그동안 참여했던 경판 인출 작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65년 이후 지금까지 15세부터 69세까지 근 55년 동안 수많은 경판 인출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경판을 한 번 이상은 다 만져보았다고 본다. 서울 봉은사 '화엄경'을 많이도 찍어내 많이도 팔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인출 작업이 있지만 일이 너무 없는 편이다. 목판본 책을 보는 이도 없으며, 또한 목판이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 보니 만질 수도 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다.

영인본은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지만 목판본은 그렇지 않고 편안하며, 복장물에 넣는 경전은 반드시 목판본이어야 하는데 영인본으로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앞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목판 인출 작업의 과정을 스님들이 다 알아야 하는 일이고 배워서 해야 하는데 배우려는 스님이 없다. 기술을 알려주려해도 일반인은 물론이고 내 아들조차 관심이 없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이러한 전통 인쇄 기술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목판 인출은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조차 없다. 새로운 인식과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 목판 조사와 관련한 자료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6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영재 인출장인과 연구소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이것이 무엇인가

지광 / 호주 정혜사



지광 스님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출가하신 외국인 스님입니다. 명성 회주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간화선 수행으로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습니다. 현재는 호주 정혜사에 머물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한국불교 수련회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호에 이은 마지막 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편집자주)

번역 / 사집과 선정



송광사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다른 세 명의 행자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송광사의 방장이시고 그 당시는 율법 스님이셨던 보성 스님의 지도하에서 살았습니다. 열두 명 정도 남짓한 외국 스님들과 문수전에서 대중 생활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외국 스님들이 대중 생활에 적응하고 수행하며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절 주변의 풀을 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제기간에는 오랫동안 참선도 했습니다. 작은 방에 딸린 선방도 만들었고 우리들 중 한두 명은 결제철에 다른 한국 스님들과 함께 선방에서 지냈습니다. 가까이 붙어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잘 지내려면 존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자실 크기의 방에서는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한국 음식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 때는 반찬들이 짜고 맵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두부 외에는 단백질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한국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차담시간에 시주로 들어오는 빵을 나눠먹곤 했습니다. 다 해진 이불에서 자고 양말을 꿰매어 신고 물려 입은 옷을 입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씩 심한 감정적 혼란을 겪었고 때로는 대중 공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방장스님이 대중의 건강을 고려해서 현미밥으로 바꾸려 했을 때는 당신의 소임이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상황이 자세하게 우리 쪽으로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웬만한 비난과 힐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건 남이 잘못된 일이건 따지지 않고 공손하게 '미안해요' 혹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스님들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고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수행할 수 있었음에 만족했습니다. 4년쯤 지나 구산 스님께서 입적하시자, 그분의 첫 제사 후에 대부분의 외국 수행자들이 송광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님과, 부처님 말씀, 화두, 그리고 따뜻한 방바닥! 또한 제 부모님께서 친절하고 관대하게 저의 영적인 추구를 지지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 드립니다. 이 뜻 깊은 시간 동안에 만났던 많은 스승님들이 제 영적인 추구의 깊이를 더해주었으며 좁은 견해를 극복하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출가 후 속세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구산 스님은 오랫동안 그리웠습니다. 그 다음 12년 동안 송광사에는 외국인 출가자 수가 점점 줄었지만 외국인 출가자들을 위해 인원암이란 암자도 지어졌습니다. 인원암은 화엄전 뒤편의 산에 위치해 있어서 명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운문사와 다른 절들을 오가며 제가 아는 스님들과 그곳에서 9년 동안 지냈습니다.

운문사

제 정신적 고향은 송광사이지만 비구니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운문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명성 스님께서 저의 은사스님이 되셨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명성 스님은 제 정신적 어머니이자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행자였을 때 마음의 준비가 채 되기 전에 운문사에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언어나 문화적인 이해의 도움 없이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2년간의 엄격한 남방불교의 환경에서 명상도 해봤지만 여전히 저는 숲 속에 던져진 아기와 같았습니다. 이 바쁜 승가 공동체 생활에서 외국인 행자인 저를 위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이었을 때였으니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설거지를 많이 했고 채소를 끊임없이 다듬었으며 명상하며 많이 읽으며 약간은 울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화도 많이 했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행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홍륜 스님, 진광 스님, 일진 스님과 같이 방을 썼습니다. 모두 친절하셨지만 운문사는 제가 선택해서 있었던 곳이 아니었기에 첫 수계를 받은 몇 달 뒤에 제 스승님과 외국인 수행 공동체가 있던 조계산으로 돌아갈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간화선과 화두의 발견

마음속에 있는 헤아림과 욕망, 온갖 개념들이 화두를 통해 끊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화두는 한마디로 말머리란 뜻입니다. 종종 비판적 어구라고도 합니다. 화두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은 본래 완전히 깨어 있고 완벽히 깨달은 것이지만 단지 어리석음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것을 알고 화두를 통해 큰 의심을 일으켜 망념의 구름을 타파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견성(initial awakening, 최초로 성품자리를 보는 것)의 경험을 통해 의심을 일으켜 자연스러운 초견성으로 모든 망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¹⁾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본성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는 지혜의 빛이며 모든 망상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나'라는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두를 든다면 우리는 화두의 뜻을 탐구하고 상상력을 펼쳐 자세히 설명하려 할 것이며 곧 진짜 중요한 점을 놓칠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어떤 특정한 접근 방식이 있진 않지만 제 경험상 화두가 일상이나 수행 중에 자연스레 일어난다면 우리는 간화선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행은 명상적인 경험을 바라거나 평온하고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묘한 감정과 생각에 안주하려는 수행자들은 종종 세상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행은 매우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핵심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일어납니다. 적절한 장소나 시간 같은 준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낸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요인들이며 지속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커지는 의구심을 밝힘으로써 이 분별의식을 태우면 우리의 기본 성품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생각이나 무념 같은 것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수행으로 삼는다면 그 생각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행동에 아주 유용합니다.

‘수많은 의구심은 곧 하나의 의구심이다. 하나의 의구심을 타파하면 모든 것을 타파하는 것이다.’

위빠사나

저의 첫 위빠사나 경험과 무엇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신진 조각가로서 전시회를 했을 때 한 관객이 어떤 조각 작품에 대한 제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전 그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했고 그분은 제 작품이 그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기는 듯했습

1) Through a spontaneous initial awakening where a sense of 'doubt' developed through an initial awakening experience, cuts off or absorbs all other thoughts.

니다. 저는 한번도 심각하게 제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니다. 그 뒤로 저는 ‘대체 그 사람이 원한 것이 뭐였을까?’ ‘그 사람은 무슨 뜻으로 질문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했고 그 다음에는 ‘뭐지?’라는 의문만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제 마음은 이 질문으로 불이 붙은 채 몇 날 며칠이 지나 일주일도 훌쩍났습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강렬한 경험 뒤에 아주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나’ 또는 ‘내 인생’에 대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위빠사나’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흘 동안의 위빠사나 명상코스를 안내하는 포스터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가 70년대 중반이었을 테니 아마도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지는 불교 명상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불교에 대해 읽어보고 부처님에 대해 들어보기도 했지만 위빠사나 또는 통찰 명상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 코스에 들어가자마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화두에서 말하는 커다란 의구심이라는 것에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코스를 밟기 몇 주 전에 이미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자 쉽게 집중이 되었으며 생각은 일어나자마자 타버렸고 정신이 맑고 밝은 상태였습니다. 몸의 감각은 내 주변과 일치가 되어 주위의 모든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집중의 경험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코스 동안 그 상태는 지속적으로 강렬해졌습니다. 그 희열감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그저 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찾던 바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빠사나 스님들과 얘기했을 때는 제 몸의 감각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삼매의 깊이를 맛보았을 때는 생각이 거의 없었으며 몸의 감각은 물론 시각 소리의 감각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어 있는 마음에서는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다시 눈을 떠서 돌아온 현실에서도 그 넓어진 경이로움은 꽤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징적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지만 당시 경험했던 현재 깨어 있는 마음에서의 여실지견(open sense of this-ness)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²⁾ 어떤 면에서 그 상태는 조용한 내면의 탐구 쪽으로 더 나아가게 했으며 결국 다른 많은 기회와 집중수행을 통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However the embodiment of the experience did fade away with time, but something didn't, this open sense of this-ness in the mind present to what I was experiencing.

선지식의 소중함

제 자신의 상좌를 포함하여 제가 아는 많은 스님들이 미얀마나 스리랑카로 오랫동안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미얀마 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일컫는 자나(jhana) 또는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삼매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용한 통찰력을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지도를 받으며 마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열반의 과실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앞서 경험한 것에 매달리거나 엄격한 규율을 벗어나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신적 불안정과 편협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명상이나 정제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꼭 지혜를 남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되거나 나와 남에 대한 분별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명상 수련은 숙련되고 선한 스승님들의 도움을 받아 빨리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여러 스승님을 만나려 다녔습니다. 그 중 연세가 지긋한 노스님들도 계셨지만 때론 젊음을 걸고 수련하는 비구 스님들의 모습에 신심이 나기도 했으며 깊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산속에서 은둔하시는 분을 만나서 심오한 지혜의 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혜롭고 깨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해외로 법문을 하러 나갈 때 이런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알아볼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구산 스님과 같은 큰 스승님은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운문사에서든 여러분은 훌륭한 보살, 훌륭한 도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두를 들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증득하려면 여러분들은 돈독한 신심과 헌신적인 수행자들이 모인 승가 집단과 정열적인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대의심을 촉발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화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공을 처음 맞본 후부터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라고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첫 스승님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제 수행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님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 덕분에 제 내면 안의 스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信

글 / 사교과 민재
그림 / 사미니과 서륜

믿음이란
물을
막게하는
구슬과
같다



높히
흐린물을
맑히기
때문이다



빛보다 빠른妄想, 빛같이 일어나는煩惱

서론 / 사미니파

오늘 하루 길고도 짧았던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어김없이 맑게 박혀 있는 예쁜 별들이다. 이런 별들이 어렸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 별이 현존하는 별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몇 백 년 전 또는 몇 만 년 전에 빛나던 별이 지금에서야 우리 눈에 보인다는 말이었는데 눈앞에서 빛나는 저 별이 몇 만 년 전에 빛나던 별이라니...

내가 지금 별의 과거를 보고 있단 말인가...

어느 천문학서적 중에

“우주공간과 같은 진공상태에서 빛(초속 30만km)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가장 빠르다는 이 빛 또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지구와 38만km 떨어진 달까지 가는 데는 약 1초 정도가 걸리고, 태양까지는 8분 18초가 걸린다. 북극성까지는 800년이 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까지는 220만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지 현재의 모습이 아니다.”

사실 이 빛이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가늠이 안 가지만 초속 30만km인 빛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니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빛보다 빠른 것은 정말 없는 것일까? 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초속 30만km로 달려오는 빛보다도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건 아닌지 문득 생각해보았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나니 이것은 곧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은 본래 망령됨이 없음을 안다면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알겠는가?

- 황벽선사 -



그림 / 사미니파 도욱

인간은 타자와 연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이기적이거나 또는 집착에 의해 번뇌망상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실 이러한 번뇌나 망상에도 진리가 들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진리는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닌 연기적 관계가 달라지거나 또는 인간에 관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변화의 근본이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악을 앎으로써 선을 알고, 선을 앎으로써 악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요, 연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탐·진·치나煩惱妄想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일어나는 파도처럼 이런 연기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생멸이 발생한다. 그러니 한 가지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중도의 불법을 따르면 그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망상이니 부처이니 하는 인간이 만든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무위적인 연기법을 따르는 것이 불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집착심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려놓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집착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 자체가 남과 연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심을 버리는 것도 사실 구체적인 연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계에서도 집착심을 버린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아야만 無心無念의 如如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무위적 연기관계에서는 무위적으로 순응하고 적응하며 반응할 뿐이지, 결코 무엇을 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작위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번뇌망상은 일상생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상대방에게 받은 고마운 마음을 보답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보답한 내 마음이 바로 받기를 바라는 집착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었다면 흡족했겠지만 문제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다. 이 순간부터 온갖 번뇌망상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미 이 때는 애초에 상대방에게 주었던 그 고마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도대체 그것들은 언제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진짜 상대방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은 어느 것이었을까.

마음은 온갖 경계 따라 움직이는 곳마다 진실로 그윽하네
흐름을 따라 본성을 알고 보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 마나라 존자 -

여기서 '흐름을 따라 본성'이란 연기법을 따르는 본성을 뜻하며, 이러한 연기의 세계에서는 기쁨이나 근심과 같은 특별한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자신 밖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종교적 신앙을 통해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얻고자 소망한다.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행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쁨과 슬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행복이나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환경에 따라서 언젠가는 불행과 슬픔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기쁨과 슬픔은 모두가 삶의 과정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불안정한 상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취함이 불법을 따르는 바른 길이라 생각할 수 있다. 53

기도 성취,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그 모순에 대하여

석인 / 사집과

저녁예불을 마치고 안행을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대웅보전이라는 거대한 황금빛 현관의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시야 가득히 들어왔다.

‘大雄寶殿이라...’ 그 순간 출가 후 겪어온 모든 마음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환희심으로 가슴이 벅차 올라왔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매일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백천만집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회유한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하고 있는지, 전생의 나에게 고마웠고 이렇게 출가 수행자로서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모든 존재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불도를 이룰 때까지 저와 함께 해달라고 살짝 부탁도 드렸다.

나의 경우 출가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도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원했던 기도가 성취되었다면 아마 출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소원이 성취된 적이 없었다. 좋다는 기도처에 기도도 올려보고 내가 직접 수차례의 100일 기도도 해보았지만, 간절한 바람이 담긴 기도를 한 순간 쏙으로 절복시키시는 부처님의 방편력에 나는 온몸으로 절규하며 수순하는 법을 배웠다.

아! 딱 한번 성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자격증시험에 합격하면 출가하겠다는 발원을 했는데 딱하니 합격하는 것이 아닌가!!! 뭐지 이건??

그 후로 나는, 나의 출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전생에 아마도 부처님께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출가하겠다는 단서를 붙이자마자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삶의 모순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

부처님과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한 자격증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한 채 출가하는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닌가 고민도 했지만, 요즘 돌이켜보면 출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묘한 운명의 한 수였다는 이해를 넘은 감동과 배려까지 느끼고 있다.

지난 가을철 80일간의 작압전 기도 부전 소임을 살았다. 물론 개인적 원이 있었기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름철 반장소임을 사느라 이런저런 신경전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반

스님들과 부딪치는 것조차 싫었던 나는 시간만 나면 작업전으로 향했다. 최대 수용 인원 2명,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작업전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기도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과 내가 옳았음을 입증하려는 변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거친 파도처럼 출렁이던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상대방에 대한 미움보다는 내가 잘못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담임 교수 스님께서 반장소임을 살면 반 스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기도부전 소임을 살다보니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끔찍이도 비난했던 누군가의 이기심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나의 이기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니...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지적이나 비난에 화가 나고 받아들이지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내가 나를 몰라서였던 거였다.

작업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발원했던 개인적인 소원은 역시나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나름의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기도 성취의 모순을 믿는다. 모순이란 나의 좁은 소견으로 모순이지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좀더 크게 멀리 보기 위한 궤도 수정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웅대雄이시기에 언제나 나의 예고가 원하는 것 이상의 훨씬 거대한,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셨으니...



그림 / 사미니과 도록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불타는 집에서 나올 줄을 모르는 아들들을 불러내기 위해 장자는 다음과 같은 회유책을 제시한다. 너희들이 원하던 수레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어서 나와 가져가라고. 아들들은 신이 나서 황급히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아들들이 모두 나온 것을 보고 마음이 한없이 기뻐던 장자는 아들들에게 흰 소가 끄는 온갖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아들들은 제각기 큰 수레를 타고는 일찍이 없었던 회유함을 느꼈으나 원래 이것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다.

기도 성취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기도 성취의 모순을 받아들이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

가을철 원주를 살면서

태감 / 사교과

오늘 제가 살아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살아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이 귀한 인생을 얻었으니,

오늘도

화도 내지 않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쓰고,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행하여 제 마음을 닦으면서

저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베풀겠습니다.

이 귀한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림 / 사미니과 인우

달라이라마 — 아침 기도문 중에서

언제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운문사의 가을.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를 보며 시작한 가을철 소임 원주. 짧은 것 같지만 긴 시간이었던 소임기간을 돌아본다.

가을철 소임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며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개학하자마자 오백전 입재 울림이 기다리고, 이어 추석과 동문회가 줄지어 손짓하며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산들이 울긋불긋하게 옷을 바꿔 입고 있는데도 사색을 즐길 여유도 없이 하루가 간다. 큰 행사가 끝나고 나니 연이어 조사전 제사와 주차장 화장실 고사가 있어 10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한 해 숙원사업이자 전에는 겨울철에 하던 김장이 11월 가을철 소임자와 대중스님, 그리고 봉사자분들을 향해 손짓한다. 김장 날이 되면 운문사는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핫팩을 붙여 가며 하는 김장울력을 끝내고 나니 가을철 소임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노랗게 물들어 가는 은행나무와의 만남을 뒤로 한 채 가을철 원주소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는 ‘오늘 제가 살아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라는 시를 떠올리곤 했다. 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마다 3번씩 읽다보니 언제부터인지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어 감사했고 많은 대중스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과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웃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자 부산스럽게 오고가는 와중에도 조금씩 여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물건을 정리하고, 각종 서류 및 재고의 위치를 파악하여 대중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챙겨드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락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서늘한 냉동고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는 원주소임은 시간이 갈수록 흥미로워졌다. (이것 이외에도 재미나는 일감은 천마다 다양하고 풍부하니 한번 살아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아랫반 스님들은 먼저 손들어 살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흥미로운 일감으로 한 천 소임을 살면서 조금 더 재미나게 살 것을 하는 후회도 생겼지만 뿌듯한 마음이 앞선다. 그 이유는 지나온 시간들이지만 운문사의 첫 치문 시절,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 때는 왜 지금처럼 재미나게 살지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한 마음 일어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괜찮은 치문시절을 즐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물밀듯이 찾아든다. 또 한편으로 지금 치문반 스님들을 보면 심분 이해가 되어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어설픔 후원 일과 상반스님과 관계를 보면서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다는 것이 실감나고 보살님들과 함께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그리고 스님들과 보살님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조화는 불보살님의 염화미소를 생각하게 한다.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할까? 메뉴판만 보아도 별좌스님이 무엇을 할지 알아서 양념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마음을 엿보면서 후원의 훈훈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예쁜 우리 행자님들. 오랜지색의 행자복 차림으로 후원을 뛰어다니며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설거지와 먹거리 준비를 하는 행자님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졌다. 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처사님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어김없이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사실 이 소임을 살기 전에는 ‘그냥 오시는 분이구나.’ ‘오늘은 김 처사님이 쓰레기 버리는 당번이네.’라고만 생각했지 더 깊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주소임을 살면서 두 분 처사님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마움과 숙연해지는 마음에 부끄러웠다. 이렇게 원주소임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조금이나마 멀리 내다보는 힘이 생겼다.

내공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대중스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언제나 꽃처럼 향기롭고 꽃처럼 아름답다. 

회주스님 시자 이야기

해공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해공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날, 회주스님 시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화엄 첫 절, 봄을 맞이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도반스님과 손을 맞잡고 운명의 죽림현으로 올라갔습니다. 죽림현의 부처님, 즉 회주스님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씻으실 시간이 되면 당신 손으로 말끔히 정리된 옷가지들을 챙기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부축해 드리면 앞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부축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주스님께서는 개인적인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십니다. 저희는 그저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해내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예불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자리에 앉아 사경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그날의 사경을 끝내지 않으시면 잠자리에 들지 않으십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시자소임을 시는 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매일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주스님께서는 분명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하루하루 법문을 들은 것 같은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예불과 사경, 참선, 그리고 독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는 회주스님, 정말 귀감이 무엇인지 제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회주스님께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사경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경을 시작하실 때, 제게 메모장 줄 바꾸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알려드리면 스님께서는 스스로 줄바꾸기가 될 때까지 계속하셨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스마트폰 사용법조차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급세 메모장을 숙달하시고 사경을 시작하셨습니다. 반야심경, 약찬게, 법성계, 다라니 그리고 종송 계송까지 끌고루 부처님의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가 아닌 한 자씩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 적은 화면 속의 글자들, 7번, 21번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사경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내가 이만큼 썼다면 웃으시는 회주스님, 모든 것을 불국토로 장엄하시는 스님을 저는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또 스님께서 품소 보여주시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의 가르침, 매사에 진실하라!

이 말씀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우리 학인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하나만 든다면 스님께서는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확인 또 확인, 분명해진 말을 똑바로 전하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작은 꽃을 심으실 때조차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위치를 정확히 손으로 짚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 자리에 꽃이 심어졌는지 확인하셨는데, 혹여나 심어진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실 때에는 제가 전화로 확인하고 알려드리면 스님께서는 "누구한테 확인했나? 내가 가서 확인했나? 내가 봤나?"

라고 물어 보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꼼짝 없이 그 자리에 꽃이 심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제 소임이 끝나는 날까지 회주스님은 처음과 똑같이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정확하지 않은 근거 없는 작은 이야기가 점점 부풀어지는 것을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알면 '아 뭐야 그랬어?' 또는 '아니면 말고'의 태도로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반복되는 일은 잘 진행되었는지 하면서 넘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찰나의 방심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며 조금 더 부처님께 다가가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중스님 여러분, '남은 소임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내가 앞으로 무슨 소임을 살지?' 고민이 된다면, 대나무보다 소나무가 많은 죽림현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눈앞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 철 저의 꿈을 봐주시는 회주스님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ॐ



하심, 회광반조廻光返照의 시작

유심 / 사집과

회광반조廻光返照란 '빛을 돌이켜 비추어보다'란 뜻이며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말과 글자를 초월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회광반조의 설명은 치문을 배울 때에도 몇 번 들었지만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 사집에 올라와 도서를 배우는 중 "況阿難은 多聞總持호대 積藏를 不登聖果라가 息緣返照暫時코사 卽證無生하니...(하물며 아난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세월이 흘러도 깨닫지 못하다가 연을 쉬고 반조하는 잠깐 사이에 무생법인을 증득하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息緣返照"란 외부경계를 반연하는 緣慮心을 끊고 안으로 관조하여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緣慮心"에 대해 일타 스님의 법어 중에는 '다가오는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마음 상태이다'라는 설명이 있고, 탄허록에는 '순간순간 보고 듣는 것에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이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즉 일상 순간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끊고 안으로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회광반조였습니다.

더불어 회광반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이란 뭐지?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볼 수 있을까?'

빛이란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며 어떠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엔 '이 빛을 어떻게 돌이켜보지?'였습니다.

일어나는 마음, 생각, 행동(=빛)은 바로 '하심'을 통해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잘못했습니다."의 무조건적인 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외부경계에 반연하는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면 계속 '내' 생각을 이해시키고 누르고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 '나를 내려놓는 하심'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돌이켜본다!!! 바로 회광반조의 시작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생각, 행동 등으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를 맺고 주고받음이 있고, 즐겁다, 싫다, 좋다 등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등 다양한 반응과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를 살피고 자각하여야 합니다. 이 때가 바로 '회광반조-빛을 돌이켜 살피기'와 '하심-나를 내려놓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내려놓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출가하는 날 "하심하면서 살아라."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여쭙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인욕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걱정을 들으며 하심과 인욕을 했습니다. 그때의 인욕은 은사스님에 대한 인욕이었습니다.

강원에 입방한 지 2년이 흘러 어느 날 은사스님께 또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홀연히 '내가 왜 스님을 걱정시키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 속엔 여쭙러 가기 귀찮은 마음과 내가 옳다는 생각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은사스님의 "하심하라."라는 말씀이 나를 내려놓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며 스스로를 살피보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 하심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면 내가 이해했을까? 만약 그 뜻을 이해해도 돌이켜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무조건적 하심'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또 이렇게 아는 것이 회광반조와 같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회광반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이며 부처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회광반조와 다른 뜻일까요?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선에서의 회광반조를 햇불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낀 회광반조는 부싯들입니다. 부싯들의 불은 여러 번 탁탁 부딪치며 잠깐 밝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싯들에서 불이 불듯이 끊임없이 하심을 통해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보면 언젠간 중생을 원히 비추는 햇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하심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아 대중과 하나가 되며 그 대중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면서 수없이 부싯들을 부딪치다보면 언젠간 아난 존자처럼 문득 회광반조하는 사이 무생법인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그림 / 사미니과 지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노스님께

자운 / 사집과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중략)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 용혜원 -

보기만 해도 따뜻한 이 시를 낭독할 때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노스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노스님께

노스님, 저 노스님 막내 동강아지 자운입니다. 동지 휴강 때 뵈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무서운 추위가 한층 꺾
여가는 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한파가 몰아칠 때에는 노스님의 따스한 그 품이 그립습니다. 그동안 부끄럽고 쑥스럽다는 이유로 평소 입에만 맴돌았던 차마 못했던 말들을 이번 기회에 전하려 합니다.

어릴 적 기억도 안 나는 아기일 때부터 뜻도 모르는 노스님을 불러댔고, 그저 예쁘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당부에 이렇게 잘 성장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줄곧 노스님 품에 안겨, 노스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이곳 운문사에서 도반스님들과 화합하여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칠었던 시절 이게 싫다 저게 싫다 온갖 세상투정 다 부릴 때면 묵묵히 끝까지 다 들어주시며 그저 “관세음보살” 하시며 “네가 힘들 때 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분이 옆에서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널 도와 줄 거다.”라고 항상 그러셨지요. 그래서 한두 번 찾다보니 습관이 돼 이제는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힘들 때마다 노스님께 달려가고픈 마음을 누르며 관세음보살을 찾았고, 그분께 속을 털어 놓으면 마음이 그나마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노스님 그때 기억하세요? 저 처음 출가할 때 눈시울을 붉히시며 그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괜스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출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스님께서 크게 편찮으셨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가슴에 돌이 없어진 것같이 무거웠고, 세상이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 지극정성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후 차츰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고 재발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오던 어른스님들의 “너는 큰스님 해야 한다.” 말씀에 ‘물 흐르듯 출가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심을 내어 재발심하게 되자 꼭 그 말씀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스님! 저에게 항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말씀하시지만 노스님께서선 저에게 살아 있는 부처님이요,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시니, 그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라 저의 신심도 또한 날로 증장하고, 매시간 살아감에 감사함을 느끼며, 나와 남 차별 없이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스님 가르침을 항상 품에 지녀, 언제나 퇴굴치 않고 굳은 심지와 강한 신심을 가지고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언젠가 막내 똥강아지 자운이 자라 큰스님이 될 때까지 저의 신장님이신 노스님께서 곁에 계시길 소망하며...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

간송 전형필

현우 / 운문사한문본전대학원



서울 정동에 있는 세실극장이 폐관한다는 기사가 작게 났다. 한때 꽤 잘 나가던 극장이었다. 1970년대에 개관하여 연극뿐 아니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사무실로 바뀐다 한다. 이곳을 통해 성장했다는 극장 배우가 아쉬워하는 인터뷰가 기사에 섞여 있었다.

한 시절이 막을 내리는 느낌이었다. 세월의 힘과 자본의 흐름에 밀려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 대부분 모른 채 지나갈 것이다. 알아차려도 금방 잊을 터이다. 그렇게 우린 많은 것을 놓아버린다.

사라지는 것들을 다 부여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겨야 할 것마저 놓쳐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다양한 박물관을 짓고 때론 자신들만의 과거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그런 일들이 요즘엔 자연스럽다.

우리에게 한때 삶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에 강제 점령되어 민족과 전통이 36년간 억압되었던 불행한 시기, 일제 강점기이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강요되는 때에, 뒷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려 애쓰신 분들이 계셨다. 그 중 한 분이 간송 전형필(松全鑒澈1906~1962)이다.

김영사에서 2010년 펴낸 『간송 전형필』이란 책은,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이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라고 부제를 달았다. 인물 평전에 가깝지만 이야기 서술 방식은 좀더 자유롭고, 수집에 얽힌 극적인 에피소드가 많아 흥미롭다.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자료 사진이 많아 눈도 즐겁다. ‘이 작품 알아!’라고 외칠 사진도 많다. 간송이 수집한 작품 중 국보가 12점, 보물이 10점이기 때문이다.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 매병』도 그 중에 들어 있다. 고려청자 하면, 이 매병을 떠올릴 만큼 고려청자의 걸작품이다.

책은 이 청자 매병 이야기로 시작한다. 일본인 도굴꾼이 무덤에서 청자를 훔쳐내어 거간꾼에게 천 원에 판다. 수십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뚫고 맑은 옥빛 하늘로 날아오르는 매병이다. 천 원은 그 당시 한양의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40~50평 아파트 한 채 값 정도일까?). 여러 거간꾼과 수집가를 거치며 가격은 육천 원으로 오른다. 청자의 가치를 알아본 마지막 거간꾼은 유례없는 금액인 2만 원으로 값을 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유력한 수집가를 대상으로 고객을 찾는다. 매병을 직접 본 간송은 두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내놓는다. 뒤늦게 일본인 수집가가 찾아와 두 배의 값을 제시하며 넘기기를 요청하지만 간송은 이를 거절한다. 이 매병보다 더 좋은 청자를 준다면, 시세대로 매입하면서 매병은 자신이 치른 값대로 팔겠다고 하면서,

이 일화는 간송 전형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정신을 가진 수집가인지 보여준다.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속고는 하지만 장고는 하지 않았고,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놓친 적이 거의 없다. 천학매병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종로 배오개 장터에서 몇 대째 미곡상을 해온 무관武官 집안의 외아들로, 일본 유학도 다녀온 지식인이었다. 24세에 ‘조선 거부巨富 40명’에 들 정도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수집가로서의 안목은 당시 고서화에 대해 최고의 감식가였던 위창 오세창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물세 살 무렵,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전형필은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스승 오세창을 만나 간송이란 호를 받는다. 두루마기 차림의 젊은이에게 받은 인상이 ‘깊은 산속을 흐르는 물 같다’고 하여 산골물 간漣과, 『세한도』에 인용된 “세한연후歲寒然後 知송백지후知松栢之後淵(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들음을 알 수 있다)”에서 소나무 송松을 따서 간송이라 지어준 것이다.

예술에 대한 사랑과 남다른 미적 감각을 타고 났으며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민족 문화사에 필요불가결한 작품을 모을 수 있었다. 수집 작품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서화와 불상, 석조물,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국보급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마구 유출되던 시절인지라 어떤 때는 고려 초기의 부도가 인천항에서 배에 실려 밀반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사오기도 하고, 이미 일본에 유출된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 화첩을 2만5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되사오기도 했다(이 화첩은 광복 후 『해원전신첩』이라는 이름으로 국보 제135호로 지정되었다).

서화에 대한 관심이 커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검재 정선, 현재 심상정,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등의 작품을 최고의 걸작으로 수집하였다. 그의 사촌형이자 역사소설가인 월탄 박종화는 “막대한 사재를 털어 민족의 얼을 찾아놓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걸작이나 명품만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유명한 서화가의 명품과 명필만 모아서는 500년 조선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오.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서화가의 작은 그림과 글씨도 작품 수준에 상관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으는 겁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체계적으로 작품을 모았고, 보관과 보존을 위해 박물관을 짓게 된다. 최초의 개인박물관이다. 덕분에 “간송미술관의 소장품만으로 한국미술사를 서술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한국회화사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의 소장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었다.

뛰어난 재능과 부를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리고 즐기며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록 시대가 어려웠다 하나 그 정도 부유함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송 전형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옹골게 지켜 평생을 살아나갔다. 보살의 삶이 중생을 위한 살일진대 그 또한 부족함 없는 보살의 삶일 것이다. ☺



내가 만드는 세상

세상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나의 세상과 진짜 세상은 달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세상이라면 견해의 차이, 이익의 차이로 인한 싸움과 갈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이러한 나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긍정과 만족의 세계를 그려낼지 불안과 불만의 세계를 만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생존의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몫이다.

1918년 서울 보신각을 지나가는 전차의 모습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사람들은 지금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다. 한문으로 편지를 쓰고 서당을 다녔던 당시 사람들이 현재의 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 다만 100년이 지났을 뿐인데 발전의 속도는 지난 1000년을 압도한다. 순식간의 파일공유로 전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회를, 심지어 기계와 사람이 바둑을 두는 지금.



無常한 세계

요즘의 대세는 4차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이다. 사람처럼 영상정보를 해석하여 운전하는 차량(‘자율주행차’)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첫 시험운행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300만km 주행에 20여 건 사고내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제 몇 년 후면 차를 살 때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한 저명한 IT업계 회장은 “인공지능은 이번 세기 내에 지식뿐만 아니라 지성에서도 인간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광고를 제작하고 병을 진단하여 처방한다. 아

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직업세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미 물결을 형성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불려진다. 이 혁명에 대하여 낙관과 비판의 전망이 교차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사람이 적은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함으로써 삶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과 자동화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내주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근원적인 질문,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지난 100년간 변화한 것이 있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 정치 경제체제와 변화가 전 세계의 통합을 가져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발달하지만 존재로는 동일하다. 그렇기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100년 전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들과 현재의 우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다. 또한 발전의 한 측면에는 전쟁과 기아,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이 존재한다. 탐·진·치로 인한 이기심과 무관심은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한다.

2600년 전의 부처님, '나는?'

부처님께서 세상이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12가지에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 합쳐지면서 나에게 세상이 펼쳐진다. 세상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나의 세상과 진짜 세상은 달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세상이라면 견해의 차이, 이익의 차이로 인한 싸움과 갈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이러한 나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긍정과 만족의 세계를 그려낼지 불안과 불만의 세계를 만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생존의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오로지 나의 몫이다. 어떤 세상을 그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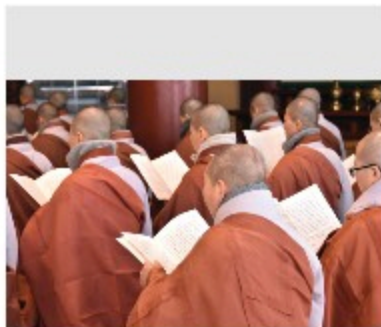
心如工畫師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能畫諸世間 능히 모든 세상일을 다 그려낸다.

五蘊悉從生 오온(색수상행식, 나)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無法而不造 무엇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 80 화엄경 夜摩宮中偈讚品 覺林菩薩頌 66



▲ 동안거 포살



▲ 법계문학상 시상식



▲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



▲ 오백전기도 회향 법회



▲ 새천년 체조

운문 소식

- 12월 2일 동안거 결제 제사 및 죽비교체가 있었습니다.
- 12월 2일 ~ 3일 동국대 학생들이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다녀갔습니다.
- 12월 10일 동안거 포살이 있었습니다.
- 12월 14일 치문반 자색이 있었습니다. 제철의 배추, 무전으로 치문반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대중들을 공양하였습니다.
- 12월 15일 겨울철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제 2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에서 이갑수 작가님이 '꺼지지 쉬운 빛'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2월 17일 교화부에서 대자원 법회를 다녀왔습니다.
- 12월 19일 회주스님께서 '조계종승가교육공로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른스님, 대학원, 화엄반 스님들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었고, 회주스님께서는 "이 상을 계기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삶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셨습니다.
- 12월 20일 ~ 23일 3박 4일간 동지휴강이 있었습니다. 사교반 스님들이 사중에 남아 팔죽공양을 하였습니다.
- 12월 24일 '오백나한과 함께 하는 백일간의 수행' 기도 회향이 운문사대중과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26일 화엄반 스님들이 대구 '자비의 집 제1노인무료급식소'로 무료급식을 다녀왔습니다.
- 12월 31일 비로전에서는 철야정진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1일 새해 떡국마지를 올리고 대웅전에서 향수해례를 올렸습니다. 오후 1시 청풍료에서 동문회 스님들이 모여 회주스님 미수생신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 1월 2일 운문사 대중과 자원봉사자 등이 '신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 1월 5일 겨울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1월 10일 겨울철 죽비교체 및 화엄반 스님들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 1월 13일 경주 동국대 법당 공양으로 경주 동국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 1월 15일 ~ 20일 화엄반 스님들이 마지막 후원소임으로 대중들을 공양하였습니다.
- 1월 17일 ~ 19일 사집반 스님들이 비로전에서 경반에서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며 자비참기도를 올렸습니다.
- 1월 20일 교화부와 15명의 학인스님이 대자원 법회를 다녀왔습니다.
- 1월 24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청풍료에서 철야정진하였습니다.
- 1월 26일 제6회 한문불전대학원과 제54회 학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 2월 5일 ~ 6일 신입생 예비소집 및 전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 2월 7일 ~ 3월 20일 겨울철 방학입니다. (42일간)

도와주신 분

- 광주 정안사
- 노기용
- 신현섭
- 조창래
- 최희명
- 하옥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삼장단

금관주취옥몽영 金冠珠翠玉璫瑛
 영락광한사벽공 瓔珞光寒射碧空
 보개보당이보전 寶蓋寶幢離寶殿
 천선천락하천궁 天仙天樂下天宮



비로전 삼장행화 중 천장보살

금관의 구슬이 푸르고 옥은 영롱하게 빛을 내고
 영락의 빛은 푸른 허공으로 쏘아진다.
 보개와 보당으로 장엄하고 보전을 떠나
 천신들이 하늘의 음악을 울리며 천궁에서 내려오시네.

비로전의 삼장단 예불문입니다. 하늘(천장天藏), 땅(지지地持) 그리고 지하(지장地藏)를 살피는 세 분의 보살님을 모신 곳이 삼장단입니다. 이 예불문은 수록재 중에서 상단, 즉 불보살님들을 청해 맞이한 다음 중단을 청하여 맞이하는 노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중 하늘보살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한글로 내려오면서 처음의 한문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한문이 없어지자 무슨 뜻인지 모를 예불문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의식 등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18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 집 기 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2018년 2월 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 형 일 시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 주지 진광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8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 형 일 시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 원감 진광

※ 신 · 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 · 통권 제143호 · 2018년 2월 2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범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동호 / 편집위원 · 석인, 자문, 서문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동호(스승께 가는 길) / 삽화 · 서림, 인우, 치엄,
도옥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